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Resilience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y Happiness-

박민서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Min-Seo Park(mokpopms@mokpo.ac.kr)

## 요약

본 연구목적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지역 복지관과 다문화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총 1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이중 13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이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 즉, 세부적으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해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중심어 : | 국제결혼 이주여성 | 자아존중감 | 적응유연성 | 심리적 행복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resil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to explore the moderate effect of psychology happiness on those relationship an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services for those married immigrant women.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the use of a survey instrument completed by 139 samples from 148 samples.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vided clear evidence that the self-Esteem was very important variable which affected on resilience in married immigrant women. Second, the life satisfaction had moderate effect on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resilience.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opics were discussed to aid the search for highly effective interventions.

■ keyword : | Married Immigrant Women | Self-Esteem | Resilience | Psychology Happiness |

## I. 서론

국제결혼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현상과 출생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결혼적령기 여성의 부족과 농촌문제

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하게 된 배경은 한국인 남성들의 국내 결혼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결혼 적령기의

\* 본 논문은 2008년 목포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접수번호 : #110328-002

접수일자 : 2011년 03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5월 02일

교신저자 : 박민서, e-mail : mokpopms@mokpo.ac.kr

남녀의 성비 불균형과, 농촌지역과 도시 노동자 계층 남성들은 결혼자원 부족, 국내 여성들의 농촌총각기피 현상 등이 국제결혼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남성들의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보다 나은 삶과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의 욕구와, 독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인 남성들과의 욕구가 부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34][1][4].

2009년 현재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약 14만 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22].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동기와 기대로 인해 한국남성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실제로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여성에게 국제결혼은 노동이주보다 훨씬 접근 가능한 이주 방식이며, 일시적인 체류가 아닌 영구적인 거주 보장과 취업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입국하였기 때문에, 이주 초기부터 직면하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기대상실, 자녀출산과 양육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및 사회의 편견에서 오는 차별 등 사회문화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8][28][24].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은 당사자인 국제결혼 이주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였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우리사회에의 부적응 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국제결혼의 매매혼적인 측면과 한국 남성들이 외국인 배우자에 가하는 폭력과 인권유린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남편의 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34][37][38][40][24].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2004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발표된 국내 학회지논문 및 학위논문 60편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논문 중 51편(84.9%)이 2007년 이후 발표되었으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들로 연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한국 내 정착과 관련된 문제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 이주여성에게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타문화권의 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불건강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주여성 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한국 내 적응과정을 돕고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관련된 다각적인 연구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러한 적응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내지 않고 현저한 적응성을 보여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관찰되면서 부터이다 [47][48]. 특히, 적응유연성을 보여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풍부한 자원을 획득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5].

이러한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로 수렴되어지고 있다[3][25].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궁극적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이해할 수 있다[31][36][46][49].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41].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산물변인을 완충시키는 조절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산물변인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정서적 개념이다[44][47][48]. 즉, 긍정적인 정서의 정도에 따라 산물변인 즉, 적응유연성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서적 개념의 조절변수 중,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이다.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이고[11],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에 빠져 의욕을 상실한 채 무능감·고립감·허무감등에 사로잡히는 정서를 의미한다[3][47]. 특히, 생활만족도와 우울증의 조절효과는 실천가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 제시를 가능케 하는 개념이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에 대해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생활만족도와 우울증의 조절효과를 통해서 적응유연성의 영향력이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연구가 단순히 단선적 관계를 살펴본다면,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생활만족도와 우울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실증적 실천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제결혼이란 사전적 의미는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1].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의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국적의 여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된 이주여성으로 대표된다[30].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모국보다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와는 달리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2009년 현재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약 14만 9천여명이 되지만, 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약 26%에 불과하고, 나머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신분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제외되기 쉽고, 어떤 이유라도 국적취득 이전에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2]. 경제적으로도 가구 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빈곤율을 보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50%이하의 수준에 있는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44.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차상위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규모를 보면 전체가구의 58.3%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남편 및 시댁과의 가족관계 및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소극적 혹은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39]. 이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14]. 이러한 갈등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자신의 고국에서 누리던 가족 및 친구들과로부터 사회지지체계가 이미 단절 또는 상실된 데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도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10], 적극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에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1)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소나 상담전화를 이용한 경험은 13~14%로 낮으며, 그들 기관이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낮다. 특히 이혼여성의 경우, 부부불화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상담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 2.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이란 탄성, 회복력, 복원력 등을 의미하고, 역경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내적 및 외적 자원을 더 풍부하게 하는 능력을 뜻하는 개념이다[51]. Masten, Best and Garmezy(1990)에 따르면 적응유연성을 위협적인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 과정에 있거나, 적응할 능력을 가졌거나, 결과적으로 적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48]. Masten(2001)은 적응유연성은 역경이나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 기능수행을 적절하게 다시 회복하는 성향을 일컫는 개념으로 대처과정의 변화무쌍한 역동적 본질을 내포한다고 설명하였다[31][47]. 이러한 적응유연성에 대한 초기 연구대상은 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36]. 하지만 적응유연성 위협한 상황 즉, 역경에 대한 극복이라는 개념적 특징 때문에, 현재는 위협상황에 처해 있는 인구집단 즉, 여성,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35][37].

한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주관적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때 자신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41]. 아울러 자아 존중감의 개인차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때 잘 나타나는데, 부정적 사건을 경험할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향을 받는다[4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복순(2009)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중간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김오남(2007)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이 우울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6].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가족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김연수(2007)의 연구에서는 결혼 행복감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5], 박정숙·박옥임·김진희(2007)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가족갈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2]. 양순미(2006)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간 적응

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외에도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3].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안으로 성민선(1987)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16], 특히 이무영·강기정(2007)의 연구에서는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와 같이 기존 연구([31][36][46][49])에서는 적응유연성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3. 심리적 행복감 조절효과

개인이 인지적으로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정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 때 심리적 행복감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45].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적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9].

이러한 심리적 행복감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6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였고,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2], 사회복지계에서도 문화상대주의적 관점과 강점관점에 기반하여 2009년 현재, 전국 각 시·도 지역 37개 기관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5]. 이후 점차적으로 학계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에 대한 논의([19][21][9][19][21][11])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심리적 행복감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다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심리적 행복감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서적 측면인,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9][42]. 이묘숙(2010)의 연구에서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설문하였다. 대상자는 지역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얻어 148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39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2달이었고, 설문은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국문 설문지와 결혼이주여성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 번역한 2가지 종류의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전병재(1974)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41][32], 부정적인 문항 5개와 긍정적인 문항 5로 총합 10개의 문항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검사에서 신뢰성이 떨어진 1개 문항을 삭제한 9개 문항을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이무영·강기정(2007)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는 .7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741로 조사되었다[26].

##### 2)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척도는 Bradburn(1969)의 심리적 안녕감(Well-Being)과 Olson과 Barnes(1982)의 생활의 질(Quality of Life) 척도를 수정하여 생활만족도 척도와 Radloff(1977)의 우울 척도를 일부 수정 보완한 김오

남(1998)의 심리적 행복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행복감 척도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7].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생활만족도는 12개 문항, 우울은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생활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우울은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편부모여성의 심리적 행복감을 측정할 김오남(1998)의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 Alpha는 생활만족도 .704, 우울증 .89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생활만족 .845, 우울증 .890으로 조사되었다.

##### 3) 적응유연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Klohnen(1996)이 개발하고, 박현진(1996)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3]. 적응유연성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부정문항은 역채점 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인 여성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할 육영숙(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는 .8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는 .886로 조사되었다[23].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부화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친 다음, 사회과학을 통한 통계패키지(SPSS, ver 17)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혼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주요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응유연성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적응의 상호작용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검증방식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43].

### IV. 연구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결혼이주여성의 연령대는 20대가 40.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0대 이상 36.7%, 30대 23.0% 순이었고, 평균연령은 32.24세(SD 9.8)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배우자의 연령대는 30대가 6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0대 23.7%, 50대 이상 12.9% 순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연령은 44.72세(SD 5.9)로 보고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결혼기간은 5년 이상이 53.4%로 5년 미만 46.6% 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평균 결혼기간은 6.59년(SD 4.3)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69.1%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결혼이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과 남편이 좋아서 5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기타 27.3%, 친정의 경제적 지원이 2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항목	빈도(%)	비고
본인 연령대	20대	56(40.3)
	30대	32(23.0)
	40대 이상	51(36.7)
		Mean(SD) 32.24(9.8)
배우자 연령대	30대 이하	88(63.3)
	40대	33(23.7)
	50대 이상	18(12.9)
		Mean(SD) 44.72(5.9)
결혼기간	5년 미만	62(46.6)
	5년 이상	71(53.4)
		Mean(SD) 6.59(4.3)
직업활동 유무	그렇다	94(69.1)
	아니다	42(30.9)
결혼이유	한국과 남편이 좋아서	71(51.1)
	친정의 경제적 지원	30(21.6)
	기타	38(27.3)

2. 주요변수 기술통계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우울증, 생활만족도), 적응유연성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응답자가 인지하는 자아존중감은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3.54점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행복감의 경우,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우울증은 2.56점, 생활만족도 3.56점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적응유연성은 점수범위 1점에서 5점 사이에서 3.51점으로

로 나타났다.

표 2.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우울증, 생활만족도), 적응유연성 기술통계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자아존중감	139명	3.54점	.50점	1점-5점	
심리적 행복감	우울증	138명	2.56점	.58점	1점-5점
	생활만족도	139명	3.56점	.62점	1점-5점
적응유연성	137명	3.51점	.45점	1점-5점	

3.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 생활만족도 간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 간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우울증과의 상관관계의 강도는  $r = -.472$ 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  $r = .197$ , 적응유연성  $r = .727$ 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는  $r = -.365$ 로 조사되었고, 적응유연성은  $r = -.729$ 로 나타났다. 아울러 생활만족도와 적응유연성 간 상관관계는  $r = .371$ 로 조사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나, 생활만족도와 적응유연성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이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와, 적응유연성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 적응유연성 간 상관관계

구분	자아존중감	우울증	생활만족도	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			
심리적 행복감	우울증	-.472***	-	
	생활만족도	.197*	-.365***	-
적응유연성	.727***	-.729***	.371***	-

\* $p < .05$ , \*\* $p < .01$ , \*\*\* $p < .001$

4.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 조절효과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조절효과 검증방식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43]. 적응유연성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을 통제한 후, 상호작용항(자아존중감×우울증, 자아존중감×생활만족도)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R<sup>2</sup>의 변화량이 유의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27]. 먼저 상호작용항은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centering)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의 원자료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변환한 후, 원자료값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왜냐하면 주효과와 상호작용항이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Tolerance는 모두 .866 이하였고, VIF는 모두 1.5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심리적 행복감 조절효과의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각 모형에 따라 독립변수군이 종속변수의 분산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수정된 R<sup>2</sup>값을 알아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우울증, 생활만족도)을 투입한 첫 번째 모형은 종속변수의 분산을 74.0% 설명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위의 모형에 상호작용항(자아존중감×우울증, 자아존중감×생활만족도)을 추가로 투입하였고, 종속변수의 분산을 74.3%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모형 2의 변화량은 1.2%로 나타나, 상호작용항(자아존중감×우울증, 자아존중감×생활만족도)이 적응유연성의 분산에 유의하게 기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울러 적응유연성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행복감(우울증, 생활만족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1>에서는 자아존중감 β=.502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우울증(β=-.453), 생활만족도(β=.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우울증, 생활만족도)을 통제한 상태에서 상호작용항(자아존중감×우울증, 자아존중감×생활만족도)을 투입

한 <모형 2>에서는 자아존중감×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지만, 자아존중감×우울증은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통해서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 즉, 세부적으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밝혀졌지만, 우울증의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향후 우울증 조절효과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4.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 조절효과

Model	적응유연성					
	모형 1			모형 2		
	B	β	t	B	β	t
자아존중감(A)	.448	.502	9.982***	.444	.496	10.033***
우울증(B)	-.347	-.453	-8.563***	-.350	-.457	-8.519***
생활만족도(C)	.077	.107	2.243*	.101	.140	2.869**
A × B				-.016	-.012	-.229
A × C				-.161	-.122	-2.284*
	상수 = 4.402			상수 = 4.416		
	R <sup>2</sup> = .740			R <sup>2</sup> = .752		
	adj. R <sup>2</sup> = .734			adj. R <sup>2</sup> = .743		
	F = 126.001***			F = 226.12***		
				ΔR <sup>2</sup> = .012		

\*p<.05, \*\*p<.01, \*\*\*p<.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의 유의성을 파악한 후,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첫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나, 생활만족도와 적응유연성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울증이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와, 적응유연성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 즉, 세부적으로 생활만족도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이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1][36][46][49][50][42][25]. 하지만, 심리적 행복감 중 우울증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증이 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주효과가 있었던 점을 감안 한다면, 자아존중감과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생활만족도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고,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 고립감, 허무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신의 생활만족도를 촉진하고, 이러한 만족감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함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무능감, 고립감과 같이 외부 환경에 대한 자극으로 촉진되는 우울증은 자아개념 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47].

요약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에서 심리적 행복감 즉, 우울증은 조절효과가 나타났지 않았지만, 생활만족도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때, 생활만족도가 조절효과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선행연구[29]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부부간의 관계를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 즉, '문화적 상대주의적 관점'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자세' 함양을 위한 사전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전국단위의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일정 시점에서의 변인들 간 관계를 살펴본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들 간 변화를 측정하는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구차순, *결혼이주 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 국제입법조사처, *다문화정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향*, NARS 정책보고서, 2010.
- [3] 권복순,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 베트남, 필리핀, 중국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pp.5-32, 2009.
- [4] 김경신, "결혼이민자가족의 수용과 정착을 위한 학문적, 실천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pp.82-110, 2006.
- [5] 김연수,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1권, pp.217-252, 2007.
- [6] 김오남,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제3호, pp.47-73, 2007.
- [7] 김오남,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8]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2006.
- [9] 김혜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 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4권, 제1호, pp.5-11, 2008.
- [10] 박미정, 엄명용,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26, 2009.
- [11]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6호, pp.59-70, 2007.
- [12] 박정숙, 박옥임, 김진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6호. pp.59-70, 2007.
- [13] 박현진,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



- 쳐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 [14] 보건복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2005.
- [1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6/2007 테마기획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통합전문위원회,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적응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2009.
- [16] 성민선, "국제결혼 한인여성들을 위한 생활모형 (Life-Model) 사회사업 원조", *여성연구*, 제5권, 제3호, pp.84-111, 1987.
- [17] 송사리,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18] 신경희,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19] 양순미, "농촌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사회참여활동 태도가 미치는 효과", *농촌사회*, 제20권, 제1호, pp.233-263, 2010.
- [20] 양순미, "농촌국제결혼 이주여성 부부의 적응과 결혼만족에 작용하는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224-225, 2006.
- [21] 양순미, 최규홍, 강경하,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 지역사회, 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제4호, pp.713-742, 2009.
- [22] 여성가족부,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증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2006.
- [23] 육영숙, "감정을 표현하는 요가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정서지능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21권, 제4호, pp.123-137, 2010.
- [24] 윤형숙, *국제결혼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2004.
- [25] 이묘숙, "노인의 우울 수준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및 생활만족도 조절효과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49권, pp.241-265, 2010.
- [26] 이무영, 강기정,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 및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실요법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복지학*, 제12권, 제2호, pp.29-44, 2007.
- [27] 이상균, *사회복지실천이 효과성 검증과 통계분석*, 서울: EM커뮤니티, 2006.
- [28] 이선주, "문화적 다양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이주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 차별과 폭력을 넘어서. 국화여성정책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 [29] 이은희, "생활스트레스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의 적응 연구: 탄력모델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1호, pp.73-94, 2009.
- [30] 임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4권, pp.189-221, 2010.
- [31] 장명희,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춘계 학술대회*, p.413, 2006.
- [32] 전병재,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제11권, 제1호, pp.107-130, 1974.
- [33] 정진경, 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3권, 제1호, pp.101-136, 2004.
- [34] 정천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비교연구*.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35] 정천석, *국제 결혼 이주여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가*.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편.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9.
- [36] 좌현숙, "빈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역간 종단적 상호관계: 심리, 사회, 학교 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1권, 제2호, pp.247-278, 2010.
- [37] 최금해, 조선숙,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제1권, 제72호, pp.143-188, 2007.
- [38] 한건수,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

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제1호, pp.195-220, 2006.

[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질,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2009.

[40] 한국염, “현장에서 본 이주여성 정책과 입법”. 국제결혼 이주여성. 차별과 폭력을 넘어서. 국회여성정책포럼 제9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41]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42] B. E. Ashforth and R. H. Humphrey, “Emotion in the workplace: a reappraisal,” *Human Relationships*, Vol.48, pp.97-125, 1993.

[43]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44] J. D. Brown and T. A. Mankowski,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4, pp.421-430, 1993.

[45]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1981.

[46] S. Harte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fo Denver, 1985.

[47] A. S. Masten,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 Psychologist*, Vol.56, No.3, pp.227-238, 2001.

[48] A. S. Masten, K. M. Best, and N. Garmezy,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2, pp.425-444, 1990.

[49] R. Parker, H. Ward, S. Jackson, J. Aldgate, and P. Wedge, “Looking after Children: Assessing Outcomes in Child Care,” *Children & Society*, Vol.12, No3. 1991.

[50] B. Parkinson, *Ideas and realities of emotion*. New York: Routledge, 1995.

[51] J. M. Patterson, “Intergrating family resilience and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4, pp.349-360, 2002.

저자소개

박민서(Min-Seo Park)

정회원



- 1980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 1983년 2월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석사)
  - 1988년 2월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노인, 사회복지행정